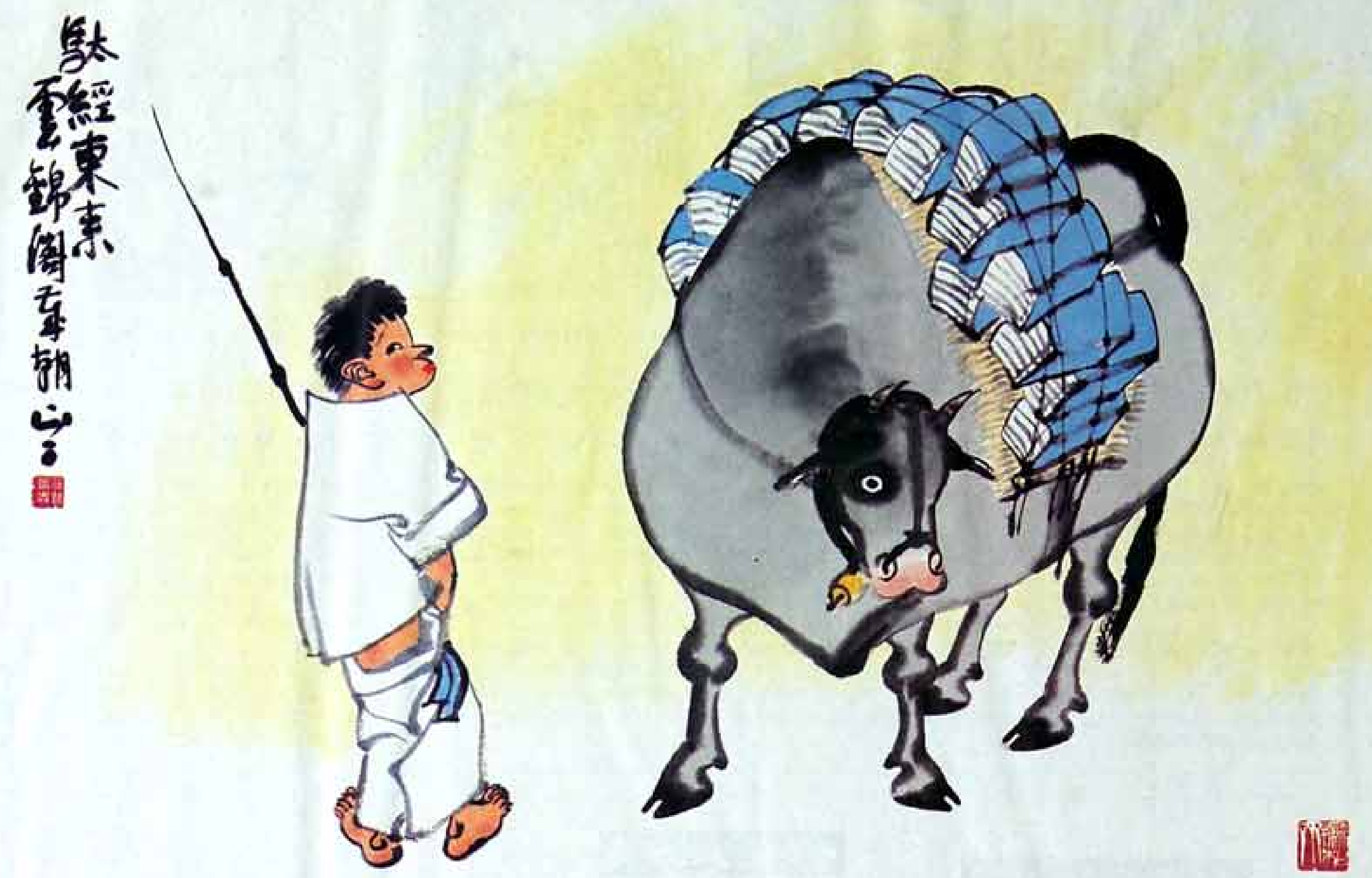
현대불교

97 신년특집



태경동래(駄經東來)

그림 · 山丁 서세옥 화백

〈삼국유사〉에 의하면 원효스님이 경주 고선사에 있을때 사복(蛇福)이 찾아와 "그대와 내가 옛날에 경(經)을 싣고 다니던 암소(사복의 어머니를 지칭)가 이제 죽었으니 나와 함께 장사지내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물었다는 고사에서 소재를 따옴. '태경동래(駄經東來)'는 '소가 불경을 싣고 동쪽(우리나라)으로 오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어디에 소 한 마리 있던가

고은 신심우도송

찾아나섰건만(尋牛)
단풍나무 가지에 매미 울음소리 뿐
발길에는 험한 길
풀섶 헤쳐
강을 만나고
강 건너 다시 먼 산 첩첩일세
어디에 소 한마리 있던가

자취(見跡)
물 건너가
거기 소 발자국 찍혀 있어
반가워라

만났도다(見牛)
만났도다
만났도다
꾀꼬리 노랫소리
봄바람인데
저만치 소 엉덩이 만났도다

너 이놈(得牛)
고삐를 잡아
뻔뻔히 끌어당겨야지
땅겨야지

하지만 제대로 말 듣지 않아
내가 도리어 끌려가네

소 치는 아이(牧牛)
비록 채찍과 고삐 잡아당겨
길들었으나
한눈 팔지 말아야 할 것
그런대도
서로 아는 사이
이랴 이랴

돌아가도다(騎牛歸家)
소 타고 피리 불며
돌아가는 길

없어졌도다(忘牛存人)
없어졌도다
없어졌도다
소 한 마리 없어졌도다
남은 것
채찍과 고삐 쓸모 없도다
늦잠 실컷 자고난 뒤

다 없어졌도다(人牛俱忘)
소도 없고
나도 없고
불화로에 눈 한 점 녹아

돌아와서(返本還源)
돌아오니
그동안 괜스레 놀았구나
차라리
눈 멀고 귀 멀어
물 절로 흘러가고
꽃 절로 피었다 지고

한 걸음 내디디어(入鄽垂手)
어찌 여기서 그칠손가
한 걸음 내디디어
흙구더기
잿더미가 껄껄 웃는데
여보게
자네가 고목나무 꽃노릇이나 하게

석탑산업훈장수상

제 17회 세계식품대회 金賞

세계 식품대회 골든 賞에 빛나는

양산 박 식품

면, 국수, 수제비

맛과 영양가에서 세계가 극찬!

특징 1. 칼슘과 섬유질 풍부
2. 졸깃하고 담백하다.
3. 의서에 당뇨, 종기, 요도에 좋다함

체인점(전문식당)모집

경남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118번지
본사 TEL(0523)83-3339, FAX83-7339
부산지사 TEL(051)526-3734